

모바일게임 저작권 소송전 잇달아

‘모두의 마블’ ← ‘부루마블’ · ‘아텐’ ← ‘리니지’ 등... 흥행 위해 유사 게임 양산 분위기

국내 게임업계가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잇따른 표절 논란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게임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니지’와 ‘프렌즈팝’, ‘모두의 마블’ 등이 저작권 논란의 중심이 됐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넷마블게임즈를 모바일 게임 명가로 올려놓은 인기 게임 ‘모두의 마블’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모바일 게임 ‘부루마블’을 만든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 마블’이 자사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루마블’은 1982년 씨앗사가 선보인 종이 보드게임으로 현재까지 1700만장이 팔린 인기 게임이다. 최대 4명의 사용자가 주사위를 굴리며 게임 내에서의 자산을 사고파는 형식이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이 2013년 선보인 ‘모두의 마블’은 지난 2008년부터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를 통해 내놓은 모바일 게임 ‘부루마블’의 게임 방식, 핵심 이름과 위치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넷마블 측은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도 소송을 통해 명확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부루마블 자체도 라이선스 체결 없이 미국의 모노폴리의 환경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에 표절



KT ‘Y2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3만명 돌파 KT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출시한 Y2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 3만 명이 가입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위치한 KT스퀘어에서 마케팅전략본부장 이필재 전무가 ‘Y수능 데이터 무제한 페스티벌’ 아이디어를 제시한 성균관대학교 S-ONE팀(이현우, 김경환, 조혜민 학생)에게 시상하고 있다.

시비를 걸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또 지난 2일에는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이츠게임즈의 ‘아텐’이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는 PC게임계의 신화라 불릴 정도로 엔씨소프트를 성장시키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게임이다.

이츠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MMORPG) 게임 아텐은 지난 7월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원

스토어 매출 1위를 차지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리니지 내에서의 유명 아이템 ‘싸울이비 장검’은 아이템 이름이 동일하고, ‘진명황의 집행검’은 아텐에서 ‘명황의 집행검’, ‘드래곤슬레이어’는 ‘드래곤슬레이어의 검’으로 이름이 흡사하다.

이츠게임즈는 자사의 게임이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의 IP를 활용한 ‘프렌즈

팝’과 ‘프렌즈 팝콘’의 유사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프렌즈 팝’과 ‘프렌즈 팝콘’은 같은 모양의 캐릭터 블록을 3개 이상 이어 맞추는 게임 방식이나 배경 화면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소송까지 번진 게임 이외에도 유저가 봤을 때 흡사한 게임은 많다”며 “게임 산업의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유행 역시 빠르게 변화하면서 흥행을 위해 유사한 게임을 양산하는 분위기가”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술항법시설’ 유럽 비행검사 합격

한국공항공사, 국산화 성공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5일 국내 최초 국산화에 성공한 고정용 전술항법시설(TACAN)의 유럽 비행 검사에서 우수한 성능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TACAN은 항공기에 방위와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항법시설로 13년부터 15년까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공사가 개발한 TACAN 시설은 지난 11월 21일과 22일 독일 현지 기어벨슈타트 공항에서 비행검사 전문가인 FCS(Flight Calibration

Service)의 비행검사 결과, 미국(MIL-291C)과 유럽(STANAG 5034)의 성능규격보다 뛰어난 성능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성능 적합증명을 취득했다.

TACAN은 각종 위성체계의 교란 및 전자전에 영향을 받지 않아 국내·외로 수요가 증가 추세여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성일환 사장은 “FCS의 비행검사로 공사 개발 장비 성능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아 해외 수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BMW 등 5개사 57개종 2만5737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와 기아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다임러트럭코리아 등 5개사 차량에서 연료장치, 에어백 센서 등의 결함발견돼 57개 차종 2만5737대를 리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BMW의 X6 xDrive30d 등 19개 차량은 타이밍체인 텐셔너(엔진 타이밍벨트)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키로 했다. 2010년 3월22일~2013년 12월11일 제작된 1만1689대를 리콜한다.

연료 누수로 시동꺼짐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BMW 320d 등 13개 차종은 리콜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 5월 저압 연료공급 라인에서 제작공정상 문제를 발견해 리콜을 실시했는데 생산 기간이 당초(2014년 6월25일~2014년 9월3일)보다 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14년 4월11일부터 지난해 2월23일까지 제작된 14개 차종 9255대다.

BMW 그란 투리스모 30d 등 15개 차종은 중앙 에어백 센서 프로그래밍 오류로 앞좌석 에어백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안전띠를 조여주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2008년 12월18일부터 2012년 6월29일까지 만들어진 15개 차종 1433대를 리콜한다.

기아차 구형 스포티지(KM)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중 유압 콘트롤 유닛(HCU)에 연결된 배선 커넥터 덮개 체결 불량으로 제설제 염수 등이 들어가면 합선이 일어나 불이 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2007년 8월9일부터 2009년 5월22일 제작된 구형 스포티지 2686대를 시정조치한다.

폭스바겐 골프 A7 2.0 GTI 등 5개 차종 1311대(2014년 5월28일~올해 3월19일)와 아우디 A3 35 TFSI 56대(2014년 7월19일~지난해 5월10일)는 연료탱크 내부 흡입제트펌프 결함, 아우디 Q7 4.2 FSI 파도트 등 2개 차종 275대(2006년 5월31일~2010년 2월12일)는 연료펌프 플랜지 문제로 각각 리콜한다.

지난해 11월1일 제작 닛산 인피니티 Q80 2대는 앞좌석 안전띠 고정장치가 반대로 장착됐거나 뒷좌석 안전띠 버클이 잘 잠기지 않아 리콜한다.

다임러트럭의 아룩스·악트로스 화물·특수차는 고압연료펌프 내부 부품(브래킷)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한다. 지난해 9월8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생산된 아룩스 2643L 등 화물차 10대와 악트로스 2643LS 특수차 20대가 리콜 대상이다. /뉴시스

엔씨소프트 직원 사옥서 사망

지난달 넷마블게임즈에 이어 최근 엔씨소프트에서도 직원 사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게임업계와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개발자 A(28)씨가 엔씨소프트 사옥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사내계시관에 글을 올리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후에 구로구 넷마블게임즈 사옥에서 직원 B(36)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뉴시스

규제 강화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 돌파구는

리튬이온전지 연 생산량 8GWh 이상... M&A로 탈출구...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현지기업과의 인수합병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모범규준을 새로 공시하면서 중국내에서의 생산능력을 대폭 상향조정, 국내기업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지난 22일 모범규준 발표를 통해 리튬이온전지의 중국 내에서의 연간 생산 능력을 기존 0.27기가와트시(GWh)에서 8기가와

트시(GWh)로 40배 이상 대폭 높여야 하고 최근 2년간 전기차 배터리와 연관된 중대 사고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공시했다.

국내업계는 연간 생산량 8GWh를 충족할 여건이 못돼 사실상 현지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삼성SDI와 LG화학의 생산 규모가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측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8GWh는 전기차 13.3만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

모”라며 “LG화학은 중국 남전에 연산 5만대 규모, 삼성SDI는 시안에 연산 4만대 생산능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인수합병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기업 역시 정해진 생산량 기준에 미달하는 곳들이 대부분인 만큼 국내 기업과의 합병으로 생산량을 채우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배터리업체 간의 인수합병도 아이디어”라며 “다

만 인수합병 예상 가능한 업체들 중 대다수가 1~4차 인증에서 이미 통과되기도 한 만큼, 중국이 기존 인증 업체들을 리셋하는나 아니냐도 관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외교 채널을 통한 정부의 상황 타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이후 산업과 문화 등에서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전기차 시장 선점 뿐 아니라 외교에 대한 문제 역시도 거론된다면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며 “중국의 견제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KOREA MASTER BRAND AWARDS 2016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 063-433-8398